

5번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141조 '폭탄 돌리기'

정부, 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 3년 연장·1년 상환 유예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병행...금융권 잠재부실 확대 우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가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이처럼 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다섯 번째 연장하고, 가장 긴 연장 기간을 부여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이번이 5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혜택을 받았고, 올 6월 말 기준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 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금융권 부담 계속 미뤄-종료 시점 부실 급증 위험=하지만 이번 조치에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2%를 나타냈다. 역대 최저치인 6월 말의 0.20%에서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모습이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연체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 즉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2년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 금융회사 입장에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조치 종료 시 차주 당사자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연장 조치를 통한 연착륙 유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행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고(高)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스린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

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애초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 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최대 1%p 감면...중기 '안심 고정금리 대출' 출시

6조원 규모 대환·신규 30일부터 신청 접수...기업별 50억~100억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존 차주인

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원으로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하되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 둘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융권 AI 동향 세미나 광주은행이 최근 동구대인동 본점에서 연 '2022년 제1차 금융권 인공지능(AI) 동향 세미나'에서 이경일(쉴스룩스 대표) <금융권 AI 휴먼 활용 동향>을 주제로 임직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FIFA에서 드리는 '럭키박스' '2022 피파(FIFA) 카타르 월드컵'의 오는 11월 개막을 앞두고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새로 입점한 스포츠 브랜드 '피파'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의류와 축구용품, 신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30일까지 구매 고객에게 선물 이트 '럭키박스'와 티셔츠, 양말, 친환경 가방 등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도, 조선업 일자리박람회 성황

현대삼호중 등 45개사 참여 480명 인력 모집

전남도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 서남권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심각한 일자리 해소를 위해 '2022년 초광역 조선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전남도, 광주시,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조선업종 45개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다.

광주·전남이 처음으로 개최한 초광역 조선업종 특화 일자리 박람회는 '세계를 움직이는 케이(K)조선, 이제는 당신이 움직일 때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480명의 구직자 모집을 목표로 진행했다.

특히 현장 채용설명회와 조선업 취업특강, 면접 이미지메이킹, 조선업 직무안내 등 구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융합·향해 가상현실 체험과 조선사에서 근무한 선배 직장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는 조선사 취업을 고민하는 구직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유현석 기자 chadol@

현장채용관, 홍보관, 비전공유관 등 5개 관 80개 부스 등으로 운영된 이날 박람회에서는 채용정보와 조선산업의 동향, 전남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작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교보문고 웹소설 플랫폼 '특소다'에 작품을 연재한다.

소설 창작진흥원은 "지난 6월 진행된 상호협력 협약식에 이어 이번 계약이 지역 웹소설 작가 발굴과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 스토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작가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웹툰 작가 3인 교보문고 플랫폼 '특소다' 진출

광주지역 작가들이 교보문고 웹소설 플랫폼 '특소다'에 진출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광주에서 막 내린 박람회 '에이스 페어'에서 교보문고와 웹소설 플랫폼 '특소다'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웹소설 계약은 지난 6월 체결된 광주정보문화산

전남정보문진원, 창업 유관기관 프로그램 진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일간 호남권역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내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ICT협회, 전남여수산학융합원 5개 기관과 창업보육센터, 동강대, 동산대, 광주대, 남부대, 한국전력공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센터별 입주(졸업)기업, 멘토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분야별 일대일 멘토링 진행 후 시작된 모의IR(투자 설명) 발표회에서

는 전남엔젤투자클럽, ㈜이드로경영파트너스, 퍼스트인투자자문, 엑셀트리, 노스마운틴(주)의 전문 투자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발표기업에 대한 피드백, 일대일 미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와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과 전문투자자와의 컨설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의 투자유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수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풀(Pool) 구축, 투자연계를 통한 자금조달 등과 같은 단계별 고도화된 창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홈쇼핑 '오늘 해남 '꿀고구마' 맛보세요'

오후 3시10분~4시 이원 생방송

홈쇼핑은 28일 전국 1등 농어촌 상품대전 '남의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원 생방송'으로 해남의 제철 수확 '꿀고구마'를 판매한다.

방송 당일 오후 3시10분부터 4시까지 50분간 '남의 광장 Live-전남편' 이원 생방송을 통해 농협회사법인 ㈜늘해랑의 '늘해랑 해남고구마' 상품을 판매한다.

방송에서는 서울 마곡동 분사 홈쇼핑 스튜디오와 해남 현지를 연결해 해남 활토밭에서 해풍 맞고 자란 '꿀고구마' 소개와 현지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을 더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영광 법성포참맛명예조합법인의 '법성포 참맛굴비'를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해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홈쇼핑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를 통해 14개 광역 시·도와 공동으로 지역별 1등 농어촌 상품 방송(남의 광장)을 포함한 TV홈쇼핑 방송판매를 실시 중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지역적 한계, 제품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방송입점비용(1500만원)을 지원받아 방송된다.

전남도는 올해 53개사의 신청을 받아 이중 8개사의 우수 상품을 최종 선정해 홈쇼핑 방송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홈쇼핑은 지난 6월 미성영어조합법인의 '영광 참조굴비'를 시작으로 5개사 상품 방송판매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도 8개사의 상품을 방송판매를 지원해 7억2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고객에게는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판로확보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3.86(+2.92)
▲ 코스닥	698.11(+5.74)
↓ 금리(국고채 3년)	4.304(-0.244)
↓ 환율(USD)	1421.50(-9.80)